

‘치유의 화음’ 네팔 지진 돕는다

테너 박인수 교수·제자들
내달 8일 성바실 성당
합동 무대로 자선음악회



왼쪽부터 소프라노 독고정화씨, 박인수 교수, 소프라노 송란씨, 테너 오위영씨가 8월 8일 ‘네팔 지진 피해 돕기 자선음악회’를 설명하고 있다.

“네팔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20여 년간 서울대 성악과에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온 박인수 교수가 네팔의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LA로 제자들을 불러 모은다.

내달 8일 성바실 중앙 한인성당에서 ‘네팔 지진 피해 돕기 자선음악회’에서 테너 박인수 교수가 총괄하며 전현직 프로 성악가인 그의 제자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 이번 자선공연은 성 바실 중앙 한인 성당이 주최하며 공연 수익금이 전액 기부돼 네팔 지진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소프라노 독고정화, 송란, 테너 김성준, 이성민, 오위영, 반주자 이하늘씨가 7가지 장르(성가, 가곡, 우리민요, 판소리, 오페라, 칸소네, 세미 클래식)의 다양한 합창을 2시간동안 선보인다. 이들은 모두 ‘박인수 소리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회원이며 박씨의 제자들. 이 연구회의 탄생은 박인수 교수가 58세에 목소리를 잃고 방황했던 시

절이 계기가 됐다.

연구회는 박인수 교수를 필두로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성악가 제자들과 함께 발성 및 소리에 대해 함께 연구하며, 서로를 ‘치유’ 하는 데 의의를 둔다.

박 교수는 “우리 연구회가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이번 공연이 이민자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네팔 지진 피해자들도 우리 음악회의 기부금으로 잘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수 교수의 제자인 소프라노 독고정화씨는 “네팔 지진사태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잊혀져 가

면서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 한다. 이들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수백회에 달하는 음악회를 이끈 바 있는 박인수 교수는 “음악은 듣는 사람의 몫이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관객들이 지루해 한다면 그건 음악이 아니다”며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편안한 음악회를 진행하겠다”고 자신했다.

티켓 가격은 20달러이며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 3611 Wilshire Blvd LA ▶문의: (213)389-3142 성 바실 중앙 한인 성당

한주혜 인턴기자

“환골탈태하는 모습 보일 것”

김재권 미주총연 신임 총회장
정치력 신장에도 역량 결집



“미주 180여 개 지역 현직 한인 회장과 8개 권역 연합회장 중심으로 미주 총연의 위상을 높 이겠다.”

제26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재권(사진) 총회장은 27일 미주총연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회장은 또 “주류사회 정계 진출을 노리는 한인 가운데 당선 가능성 있는 인물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8일 LA에서 취임식을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임원이사 합동회의를 열고 워싱턴DC로 날아가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풀뿌리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최고 공로상을 전달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 총회장은 현재 미주총연이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에

‘사고단체’로 비치는 등 위상에 흠집이 간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회원 90% 이상의 지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미주총연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앞으로 개별 한인회에서는 하기 어려운 대선 후보를 비롯한 주류 정치인과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정치인에 대한 후원 활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인 사회의 결집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27일 LA에 도착한 한국의 중앙고 재학생과 남가주 중앙중고교우회 교우들이 27일 한인타운 중식당 신복경에서 환영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 중앙중고교 교우회 제공]

“미국에서 큰 꿈 펼쳐보고 싶다”

중앙고, 모교 후배 초청

“미국 사는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7일 LA국제공항을 통해서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두 명의 학생이 입국했다.

이들은 서울의 중앙고등학교 2학년 이승우 군과 양희성 군. 이들은 남가주 중앙중고등학교 교우회(회장 김윤성)가 30년 넘게

매년 시행해온 모교 은사 및 재학생 미주 초청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이다.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 군은 “미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국에서 큰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 다짐했다.

중앙교우회는 이미 30년 전부터 모교 은사들을 초청해 보은하는 시간을 마련해왔다가 10여 년 전부터

는 ‘미래를 꿈꾸는’ 모교 재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견학 첫 날은 바쁘게 지나갔다. 미국에서 자리잡은 선배들의 비즈니스도 방문했고 UCLA도 찾았다. 28일부터는 서부 지역 관광코스인 샌프란시스코, 그랜드캐니언도 다녀올 예정이다.

두 학생은 서부 일주 여행을 마치고 내달 1일 돌아와 다저스타디움에서 에인절스와 다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오는 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장병희 기자

‘어린이 생태 체험 캠프’ 열어

우리문화나눔회
내달 나눔마을 농장서

“자연 배우고 전통문화 즐겨요.”

우리문화나눔회가 8월 22~23일 나눔마을 농장에서 ‘여름 맞이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생태 체험 캠프’를 개최한다.

나눔마을 농장은 나눔회가 지난 2011년 LA에서 북쪽으로 70마일 떨어진 레벡에 만든 21에이커 규모의 공동체 농장이다.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캠프에서 농장 투어, 닭·오리와 놀기, 지구 살리는 지렁이 공부하기, 채소 수확하기, 자연에서 구한 재료로 새

집 만들기, 새소리 듣기 등을 하게 된다. 동물, 자연을 직접 만지고 다듬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닭싸움, 줄다리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해보고 민요와 전래동요를 배운다.

대상은 5~10세이며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참가해야 한다. 참가를 원하면 8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인원이 제한돼 있어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비는 어린이 130달러, 두 번째 자녀는 85달러, 부모는 한 명당 25달러다.

▶주소: 6704 Digier Rd., Lebec ▶문의: (626)827-9599, fuzzycalifornia@gmail.com

이재희 기자

40년 전통의 한솔보험에서 만족한 노후준비를 책임집니다

주식시장 Crash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미국 경제 수장인 Janet Yellen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물론 투자의 많은 귀재들도 미국의 **이자율상승 예고**와 더불어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401(K)는 물론 많은 Mutual Fund 투자자들의 보호와 그 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주식과 채권 사이의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금보장과 고성장 POINT**를 제공하는 **연금지수상품(Index)**을 권합니다.

Index 상품의 보너스와 최고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평생연금**으로의 안전선택의 다양한 Option을 제공합니다.

※S&P 500과 매릴린치(ML)의 전략적 Balanced Index로 다양한 전략포인트를 제공함

절대상품 · 절대가격 · 절대친절

은퇴연금 및 Living Benefit 전문팀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한솔종합보험(주)
Since 1977

상담 예약 및 문의 CA Lic. #0E52100
800.300.0703 / 213.487.4900

본사 Los Angeles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지사 San Francisco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지사 La Palma 6 Centerpointe Drive #780, La Palma, CA 90623

스티브한, CLU
Life, Annuity, Series7

지미황
Life, Annuity, Series7

William 황
Life, Annuity